



“일하고 싶다”...광주·전남 실업자 5만명

3월 고용동향...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 최악 광주 1분기 청년취업 전년비 9%·전남 2% 감소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현상을 일컫는 '3포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번듯한 직장을 얻어야 한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져야 절망에 빠진 3포 세대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지표는 전월에 이어 여전히 어두운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49만5000명 늘어 1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월 33만9000명, 2월에는 22만3000명으로 두 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엔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37만9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59.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무엇보다도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이 43만1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에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3월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1.7%였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늘어났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8만5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이어 20대(7만4000명), 50대(6만명), 40대(7000명) 순이었다. 30대 취업자는 2만9000명 줄었다.

또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인구가 14만8000명(7.4%)으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도 7만명(4.4%) 증가했다. 재학·수강 등을 이유로 쉬는 사람은 14만5000명(3.5%),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8만1000명(5.6%) 각각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2.2%가 늘었다. 전남도 2만9000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취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광주의 경우 이 1/4분기 15~29세의 취업자는 1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제전망 다시 악화

금융권,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대 하향 방침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각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 수요 부진과 중국의 '중속(中速) 성장' 여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계부채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여전한 데다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금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관심의 초점은 기준금리보다 한은이 이날 함께 발표하는 올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쏠린다.

한은은 앞서 지난 1월에 올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하향 조정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올 성장률 전망을 2.7~2.9% 수준으로 내리면서 2%대 성장 전망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6일 발표하는 올 1분기 성장률도 1%에 못 미치는 부진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렸다. 이어 14일에는 금융연구원이 올 성장률을 2.6%로 예상,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내리면서 2%대 전망에 합류했고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2.4%를 제시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 등 10대 해외 투자은행(IB)이 예측한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 평균값은 2.5%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3.1% 성장'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한국이 장기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연합뉴스

기아차 'K시리즈' 美서 100만대 판매

기아차의 대표 승용차종인 K시리즈가 미국 진출 6년 만에 100만대 누적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17일 기아차에 따르면 K3(한지명 포르테), K5(옵티마), K7(카렌자), K9(K900) 등 4개 모델 라인업이 짜인 K시리즈는 미국에서 3월 말 기준 101만129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는 2010년 11월 미국 시장에 주력 모델인 K5를 출시한 이후 K3, K7, K9을 잇달아 선보였다.

K시리즈는 K5만이 시판되던 2011년에 8만3570대가 팔린 데 이어 2012년 15만2399대, 2013년 23만665대, 2014년 23만8953대 등 매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순항했다. 작년에는 24만8200대가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K시리즈의 미국 판매 100만대 돌파는 중형 세단 K5가 이끌었다. K5는 올해 3월까지 6년간 총 74만2079대가 팔렸다.

K5는 작년 11월 미국 자동차전문 평가기관인 쉐라블루북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중형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형 K7의 인기 돌풍은 내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고급 사양, 뛰어난 정숙성, 전륜 8단 변속기 적용을 통한 부드러운 주행감 등이 주력 구매층인 40대 고객의 취향에 들어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22일까지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형 K7를 구입한 고객은 4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30대(26%), 50대(24%), 60대 이상(12%), 20대(4%) 순이었다.

주력 구매층인 40~50대 비중은 58%를 차지해 K7 1세대 구형 모델의 40~50대 구매 비중 52%(40대 30%, 50대 22%)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아차는 3.3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 전륜 8단 변속기의 부드러운 주행 성능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내장 색상에서는 고급감을 강조한 브라운 컬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침밥 꼭 먹읍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에서 쌀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美 GE 회장과 협력 논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에서 미국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과 만나 환담했다.

박 회장과 이멜트 회장은 항공기 제작 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시아나항공과 GE의 비즈니스 관계 확대를 통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멜트 회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GE 이노베이션 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KPS, 759억 정비 공사 수주

일반전기 공사업체인 한전KPS는 17일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758억8천만원 규모의 발전소 기전설비 경량정비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6.4% 규모다.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오광록기자 kroh@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1	13	21	33	37	1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21,084,125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3,363,448		48		
3	5개 숫자일치	1,226,746		2,088		
4	4개 숫자일치	50,000		97,965		
5	3개 숫자일치	5,000		1,550,364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우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 ~ 80% 신상품 3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